스타트업 박람회 '비바테크놀로지 2024' 참가[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위부터)아드리엘, 지이모션, 딥픽셀, 엔엑스랩스, 리콘랩스, 픽셀리티, 제제듀/사진=네이버네이버(NAVER)의 스타트업 투자조직인 네이버D2SF의 투자 포트폴리오 7개사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박람회 '비바테크놀로지 2024'(비바테크 2024)에 참가해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참가하는 7개사는 △아드리엘 △지이모션 △딥픽셀 △엔엑스엔랩스 △리콘랩스 △픽셀리티 △제제듀 등이다. 특히 아드리엘과 지이모션은 2년 연속 참가다. 지난해 얻은 성과를 발판삼아 올해는 본격적인 시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아드리엘은 올해 생성AI(인공지능)를 활용해 다양한 디지털 광고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는 'AdGen AI'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미 부대행사인 '오랜지 그룹 생성AI 챌린지' 결승전에도 진출을 확정한 상태다. 아드리엘은 부스에서 이용자가 웹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1분에 100개 이상의 광고 컨텐츠가 자동 생성되는 데모를 선보일 예정이다.지이모션은 글로벌 파트너사와 공동 데모를 공개할 예정이다. 패션 뿐 아니라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기술이 확장 가능한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부스에서는 최신AI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3D 의상 솔루션 데모를 공개한다. 아울러 AI기반 가상 피팅 솔루션 '스타일AR'을 개발한 딥픽셀, 패션 브랜드·이커머스를 위한 이미지 생성AI 플랫폼 '아틀리에AI'를 개발한 엔엑스엔랩스는 이커머스 진출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그밖에 3D 콘텐츠 생성 기술을 보유한 리콘랩스와 XR(확장현실)스타트업 픽셀리티는 몰입형 콘텐츠 시장을, 맞춤형 교육 AI 솔루션을 개발한 제제듀는 유럽 교육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